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해외 정신건강 정책 탐구 세미나Ⅱ

조현병 진단받은 당사자가 입원한 시간 11.8일과 216.1일의 차이

: 미국 애리조나주의 역사적/제도적 경험을 중심으로

< 초대 의 글 >

최근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으로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와 맞물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정신질환자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다양한 정신질환 케어시스템의 강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에 함의 등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국 뉴욕주 편에 이어 미국 애리조나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해외 정신건강 정책 탐구 세미나Ⅱ는 “조현병 진단받은 당사자가 입원한 시간 11.8일과 216.1일의 차이 : 미국 애리조나주의 역사적/제도적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 진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및 장애인개발원 등 국책연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정책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신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오현성 교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탐구 세미나 참여를 통해 미국 애리조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권익옹호에 대한 한국의 정신건강 제도에 가지는 함의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정신건강 학자들과 실천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회장 현진희
대외협력위원장 손선주
정책분과학회장 강호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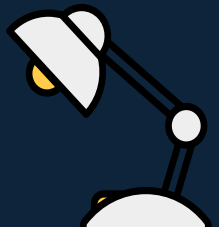
일정 및 진행방식

✓ 교육주제 : 조현병 진단받은 당사자가 입원한 시간 11.8일과 216.1일의 차이
- 미국 애리조나의 역사적/제도적 경험을 중심으로

✓ 교육시간 : 10월 17일(화) 저녁 08:00~10:00(2시간)

✓ 교육방법 : ZOOM(온라인 화상강의)

✓ 교육내용 소개



미국의 50개 주정부가 원칙적으로 해당 주의 정신보건체계를 만들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는 현재 탈원화된 정신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1960년대 이후 시설화된 입원 중심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을 촉진한 연방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별 주의 특성과 지난 60년 동안의 연방정부-주정부 협력 관계에 따라서 50개 주들은 다양한 체계적 특성과 서비스 내용을 보입니다. 본 웨비나는 애리조나주에 초점을 두고 현재 정신질환 치료 및 서비스 체계와 내용을 소개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역사 및 제도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1981년에 정신질환 당사자들을 대표한 "Chick" Arnold라는 국선변호사가 피닉스 시를 포함한 마리코파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이 재판에서 승소 하면서 애리조나 주정부는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ACT), 지원고용, 지원주택,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동료지원가 사업을 특정 인원 이상 제공해야 하고 연례 질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정신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1965년에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1981년에 와서야 도입한 애리조나 주는 비전통적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들을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쉼터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 동료지원가 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서비스를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타해위험이나 기타 정신병적 증상과 같은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의 중증도와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Triage를 가능하게 한 Crisis Now 모델은 미국 49개 주정부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같은 해외에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로컬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를 통하여 피상적으로 해외사례를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 및 제도적 네러티브를 애리조나주의 사례를 통하여 파악하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변화를 위한 정책 옹호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한 함의를 발견하실겁니다.



강사 소개

오현성, MSW,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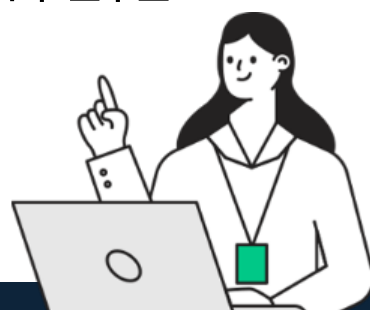
-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심지회 및 카미 (KAMI) 정책자문위원
- 당사자 매체 마인드포스트 사회적협동조합 논설위원
- 이민자 및 소수인종의 정신보건 및 일차진료 접근성 불평등 연구를 통하여 2023년까지 총 연구비 약 130억여원 (\$997만)을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으로 부터 지원받음
-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다수 국가인권위원회 및 장애인개발원 등 국책연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속성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
- 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자문위원

학력

- 2001.03-2007.02 사회복지학 학사 연세대학교
- 2007.03-2009.02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학교
- 2010.08-2014.08 사회복지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경력

- 2009.05-2010.07 삼성경제연구소 Research Analyst
- 2014.08-2015.06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 후 연구원
- 2015.06-현재 Arizona State University 조교수
- 2021.08-현재 Arizona State University 부교수





참가신청 방법

- ✓ 등록기간: 2023년 10월 15일(일) 오후 6시까지(등록비 입금 완료 분)
- ✓ 등록방법: 구글폼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수
 - ▶ 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oJ5KsntD1dFPDfgZ9> ◀
- ✓ 등록비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462284-8 [예금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현진희)]
- ✓ 등록비 안내: 10,000원

- ✓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이 발급되며, 세미나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이 제공됩니다.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에게는 학술활동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 환불규정 안내
 - 사전등록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환불금 입금은 웨비나 종료 후 이루어짐)
- ✓ 학회 가입 및 연회비 안내: 40,000원 / 가입비: 30,000원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회원서를 작성 및 이메일 제출(kamhsw05@hanmail.net)
 -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462284-8 [예금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현진희)]
 - 입금자(예금주) 본인이름 + 생년월일
- ✓ 문의사항
 - 총무간사 김길홍 / 교육간사 임경은
 - 02-711-9665, kamhsw05@hanmail.net